

여행자의 시선과 구도자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례길에서

『일본 재발견: 일본인의 성지를 걷다』(박규태, 2020)를 읽고서*

배관문

1. 성지에 대하여

왜 여태껏 일본의 ‘성지’에 대한 책은 한국에 없었을까. 의외다. “일본인의 성지를 걷다”라는 부제를 보는 순간 ‘그리고 보니...’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나의 얕은 독서력 때문일까 싶어 인터넷 검색창을 뒤져 보았지만 역시 없었다.

‘성지’(聖地, sacred place)의 사전적 의미는 종교의 발상지 또는 종교 관련 유적지일 텐데, 일본에서 ‘성지’라 하면 신도(神道)와 관련된 신사(神社) 혹은 불교사원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책의 서문에도 약간의

배관문(裨寬紋) KAIST 인문사회과학부 초빙교수.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사상사, 특히 에도 시대 국학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 역사와 문화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황국의 발견: 일본 국학의 자국 표상 담론』(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역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 한일의 미래를 위한 당사자의 관찰과 시사』(제이앤씨, 2019) 등이 있다.

* 이 글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음(NRF-2019S1A6A3A02102 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6.226>

언급이 있듯이, 저자는 최근 일본에서 스피리추얼리티(spirituality)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영성(靈性) 붐 현상을 의식하고 있다. 이른바 파워스팟(power spot)이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이후 대중적으로 풍수나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한 흥미가 높아짐에 따라 성지순례 대유행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일부 여성잡지나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를 넘어 이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등에도 공공연하게 등장할 정도다. 일본 전국 각지에 파워스팟으로 정해진 장소는 대지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화산, 기암괴석, 숲, 폭포, 호수 같은 자연물 외에 인공물로는 신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각에서는 파워스팟 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신사 본래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그저 스탬프를 모아 특전을 받는 식의 돈벌이 관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파워스팟 방문 목적은 자기계발이며 힐링(치유)이다. 신전에서 참배할 생각은 않고 신사 뒷마당에 있는 우물이나 삼나무만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옛길이 21세기형 성지순례이자 관광콘텐츠로 추앙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워스팟은 비단 현대 일본의 새로운 유행도 아니다. 그것이 고대 신화를 계승하는 성역(聖域)의 이미지와 중첩된다면 예로부터 세계 곳곳에 ‘성지’라는 이름으로,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영장’(靈場)이라 불리는 장소가 존재했다. 예컨대 산악신앙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구마노 영장(熊野靈場)은 지금도 일본 제일의 파워스팟이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기이(紀伊) 산지의 영장과 참배길” 중 구마노 옛길(熊野古道)은 이 책에 나오는 고야산(高野山)과 더불어 그 핵심코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일본 기독교의 성지로 가고시마(鹿兒島)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2018년 나가사키(長崎)와 아마쿠사(天草) 교회군이 “잠복 기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 관련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동시에 현대적인 성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재조명되고 있다. 당장 아마존 재팬만 검색해 봐도 『전국 성지 100선』 등의 특집에는 국립공원이나 세계유산이 된 장소부터 유명 건축가가 관여한 신사까지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할 성지를 망라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출판사 공식 서평에 의하면 “이 책은 저자가 20년 동안 일본 전역의 전통적인 종교 성지와 현대적인 새로운 종교 성지들을 탐방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인의 감성의 원천들 속으로 안내”한다고 했는데, 정작 본문에서 현대의 성지까지는 본격적으로 소개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¹ 지면 등 여러 제약이 있었겠지만 각 종교별로 대표 성지를 골라 놓은 탓에 기존에 알려진 신사나 사찰과 다소 중첩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일본 성지를 처음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랜 세월 일본의 신도·신사에 관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일본의 신사 중에는 전시기 국가신도와 결합된 결과, 야스쿠니 신사와 같이 한일 역사 분쟁의 근원이 되는 장소도 다수 있다. 일본의 성지 관련 서적이 시중에 흔치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들 장소가 풍기는 지나치게 ‘일본적’인 이미지에 대한 반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일본 전역에 신사만큼 다종다양한 종교 시설이 불교 사찰인데, 일본의 절은 한국과 그 모습이 사뭇 다르다. 더구나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신종교(新宗教)가 거의 대부분 불교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불교는 신도와 더불어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이 책의 속편으로 『현대 일본의 순례 문화: 시코쿠현로에서 도호쿠현로까지』(박규태,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가 있다. 여기에서는 구마노, 시코쿠현로, 메이지신궁, 도호쿠현로, 나오히마, 파워스팟, 아미메 성지, 나가사키 기독교 성지 등 현대 성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일본적’ 색채가 강한 신도와 불교 대신 기독교 성지라면 그래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니 『일본 가톨릭 유산 성지순례 가이드북』(박승우, 바른북스, 2020)이라는 책이 나와 있었다. 기독교 전문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이 아닌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자유여행 모델코스예, 음식문화 상식사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가고시마, 히라도(平戸), 야마구치(山口), 오이타(大分)는 이 책과 중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굳이 비교하지는 않겠다.

그럼 이제 이 책의 순례길로 들어가 보자.

2. 재발견에 대하여

저자는 일본인의 종교적 성지 유형을 4가지, 즉 신화와 관련된 성지, 신도 관련 성지, 불교 관련 성지, 기독교 관련 성지로 나눈다. 각각 이 책의 한 부를 구성하여 전체 4부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시중에 널린 여행기나 답사기를 생각하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낯선 길 위에서 헤매기 십상이다. 특히 제6장 고야산 부분은 거의 100페이지에 달한다. 압도적 스케일에 숨이 차오를 때쯤 새삼 깨닫는다. 이 ‘여행자’의 내공은 우리가 단숨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음을. 그나마 소소한 후일담이 등장할 때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다시 따라나선다.

사실 이 책 전반부의 글들은 『종교문화비평』(사단법인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 연재된 〈일본종교문화기행〉 칼럼을 통해 이미 일부를 접했던 터라 처음에 나는 익숙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로 엮인 책이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책 속의 성지가 일본연구자인 나로서는 그다지 새로운 풍경도 아닐진대, 대체 이 미묘하게 낮

선 감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저자는 말한다. “재발견이 반드시 ‘새로운’ 발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인데 망각해 버린 것들을 다시 기억해 내는 ‘재상기’(再想起)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432쪽)라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책을 덮고 되짚어 보니, 아마도 저자의 목적이 ‘풍경’의 발견이 아니라 ‘정신’의 발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서 그런 듯하다. 무슨 말이나면, 성지를 찾는 이유가 그 장소에 깃든 일본인의 심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것을 우리의 ‘숙제’라고 한다. 마음으로는 멀지 언정 몸으로는 가까운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일본의 속마음(本心)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기어코 해내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라고 말이다.

최근 들어 더욱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제언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마음이 떨어진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지일’(知日)이 절실하다. 상대의 본심을 알기란 절대 만만치 않다. 일본을 알면 알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곤란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본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 ‘극일’(克日)인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일본을 이긴다면 통쾌할 수는 있겠으나 세계 속에서 다 같이 잘사는 길만이 정답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화합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저자가 ‘극일’을 넘어선 ‘포일’(包日)과 ‘화일’(和日)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오래도록 길 위에서 생각을 거듭했을까.

저자인 박규태 선생님을 뵈는 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방학만 되면 길을 떠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간의 순례길이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걸었을까 나는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개인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텍스트를 실제로 고증해 가는 작업이 얼마나 버거웠을지 여행자의 힘겨운 발걸음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일본의 문화적 전통이 깊고 진하게 축적되어 있는 그곳을 걸을 때, 이방의 여행자는 종종 그 성지가 발산하는 너무도 일본적인 아우라 앞에서 이질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도 했다. 일본 신도의 총본산이자 천황가의 성지이기도 한 이세 신궁을 비롯하여 규슈 다카치호, 후지산, 이즈모 대사 등은 지금까지도 일본 내셔널리즘의 신화적·종교적 원천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한 대승불교권이면서도 계율을 부정하고 욕망을 긍정하는 일본 불교의 대표적 성지인 히에이산과 고야산은 한국 사찰과 달리 일본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밀교적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도 있다.(435~436쪽)

처음 듣는 저자의 진지한 고백이 무겁게 와 닿았다. 저자후기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일본학도로서의 나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미아처럼 방황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콤플렉스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437쪽) 까마득한 후학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그야말로 ‘박규태 재발견’의 경험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저자는 일관되게 ‘이방의 여행자’라 칭하지만 내가 보기엔 ‘구도자’의 마음에 가깝다. 저자의 깊은 사유와 통찰의 결과, 어쩌면 일본인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의식과 정신세계를 엿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례기’인 것이다.

나 역시 분명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곳을 지나쳤을 텐데, 내 시선은 그리 오래 머문 적이 없었다. 애초에 순례길이라기보다는 전공자로서의 의무감이 앞섰던 급한 발길이었고, 늘 연구의 연장이었다. 불편한 풍경과 마주하면 그냥 외면했다. 사유의 깊이는 부족할지언정 나 자신의 시선 처리에 대해 직시하려 해 본 적이 있었던가.

“자기변화를 수반하는 ‘일본의 재발견’은 곧 ‘한국의 재발견’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436쪽) 일침을 놓는 문장이었다. 내가 학생들에게 입으로만 하는 말이다. 어느새 일본연구자라는 틀에 갇혀 ‘일본’을 떼어 놓고 질문을 던지는 데 소홀해지고 말았다. 뭐든 ‘일본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기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재발견’은 공허하고 무의미함을, 나는 잊고 살았다.

3. 일본문화론에 기대어

이 책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자는 일본의 수많은 성지에서 ‘변조하는 힘’에 대해 재차 말하려 한 듯하다. 신도의 무한 관용성에 기초한 외래사상의 잡다한 동거, 즉 사상의 충돌이나 파괴가 아니라 변용하여 재창조하는 힘을 뜻한다.

일본문화론이나 일본사상사에서는 일찍이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온 현상이다. 저명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논의를 빌리면 ‘정신적 잡거성’, 다른 말로 ‘고층’(古層)이자 ‘집요저음’(執拗低音)이다. 외래사상을 하나같이 일본화해서 받아들이는 중층성이 독특한 일본정신의 저류를 이루며, 그 콤플렉스가 일종의 반동으로 불쑥불쑥 반복적으로 표출되었다는 문화비판론이다.

흔히 이야기되듯 일본인에게 절과 신사는 모순되지 않는다. 절과 교회의 조화로운 동거도 이상하지 않다. ‘신유불습합’(神儒佛習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버금가는 기독교와의 습합 현상에 집중해 보자. 말하자면 ‘불야습합’(佛耶習合)일 터이나 이 용어는 일반적이지 않다. 불교와 기독교의 본질은 같다는 의미에서 ‘불야일원론’(佛耶一元論)이라는 주장은 종종 있었다.

이 책에서도 기독교 순교자를 신사에 신으로 모시며 제사 지내는 모습, 신사 안에 기독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모습, 일본 전국에서 발견되는 마리아 관음상 등이 세계 기독교사의 특수한 사례들로 소개된다. 물론 그것은 가혹했던 잠복 기리시탄 시대에 동굴 속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불상이나 이나리상(稻荷像)으로 대체하기 위함이었다고 추정된다. 혹은 장기간의 잠복 기리시탄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변질하여 이나리 신앙과 습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사회에 유독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일본종교사의 단골 질문임에도 현재까지 정설은 없다. 다신교의 풍토 때문에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가 토착화에 실패했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다. 1549년 가고시마에 입국한 예수회 신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의하면, 일본 선교에서 제일의 걸림돌은 불교였다고 회상한다. 하비에르가 일본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의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만큼, 선교의 현실적 장벽과 문제점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기독교가 정말 정신적 잡거성 자체를 원리적으로 배제하는 종교인가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삼위일체론, 사후심판론, 성모 마리아 신앙 등 기독교의 주요 교의는 고대 조로아스터교나 이집트 종교 또는 플라톤주의를 비롯한 헬레니즘 사상과의 습합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성과에 따르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 토착종교가 자각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은 인도의 힌두교, 중국의 도교, 티베트의 본교 등 아시아에서 널리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신불습합도 일본의 독자적 발상이 아니라 다분히 외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오래전에 저자는 『아마테라스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종교로 읽는 일본인의 마음』(박규태, 책세상, 2001)에서 일견 한없이 관대해 보이는 타자 수용의 의식구조가 때로 파괴적인 타자 부정을 일으키게 되는 메커니즘

을 ‘용광로의 망각과 회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한 바 있다. 지나간 성지순례를 마친 지금, ‘변조하는 힘’을 일본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에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결코 새롭다 하기 힘든 이 논의를 저자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되묻는 의미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며 좀 더 고민해 볼 일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무시하기 전에 ‘일본적’이라는 분석틀에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자기반성부터 거듭해 볼 일이다.

4. 문화관광론에 기대어

저자의 뒤를 따라온 순례길을 나오기 전에 이 책 서문과 맺음말에서 언급한 ‘성지 투어리즘’ 현상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가자. 이 종교와 투어리즘의 결합은 현대 일본에서 성황 중인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투어리즘, 박물관 투어리즘, 아트 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도 계속해서 새로운 성지를 탄생시키고 있다.

저자는 일견 ‘신 없는 성지’, ‘신앙 없는 순례자’로 보이는 새로운 현대 성지들에도 많은 적든 간에 종교성 또는 성성(聖性)이 수반된다고 설명한다. 종교성은 인간 정신의 가장 심층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5쪽)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런데 판도라의 상자라는 메타포는 이 책에서 단순한 비유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종교학자인 저자로서는 종교의 얼굴은 최종적으로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자에게는 얽히고설킨 한일관계 역시 서로의 내면 여행을 통해 갈등을 풀어내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나의 성지와 너의 성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인류 공

통의 성지에 보이는 기준으로 저자는 진정성과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투어리스트의 경험을 설명하는 진정성(authenticity) 개념은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장소나 대상의 원본성(originality)을 중시하는 대상적 진정성(object authenticity)으로부터 제창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종교학계에서 거론하는 스피리추얼리티 경험과도 상통한다. 물론 스피리추얼리티의 정의도 다양하지만 그것은 대체로 개개인의 삶에서 생명의 원동력이나 살아갈 힘의 원천으로 느껴지는 경험과 능력을 가리킨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성지의 탄생이란 어딘가 동떨어진 매력적인 장소의 발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류하는 한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정성과 스피리추얼리티의 기준은 ‘성스러운 것’이나 ‘성지’의 의미가 종교나 제도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성스러운 것이란 공간, 시간, 사람들, 사회관계들의 성화(sacralization)라는 문화적 작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한 종교학자 치데스터(David Chidester)의 지적도 성지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을 대변한다.

저자는 결국 일본인의 종교적 성지에서 희망의 다른 이름인 진정성과 스피리추얼리티의 전통적인 얼굴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저자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셈이다. 저자는 일본의 성지를 걸으면서 지금이야말로 문화적 재성찰을 필요로 하는 때임을 절감했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통해 심층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관심 구도 속에서 언제나 허탈하기만 하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 온 국민이 일어나는 한국에 비해, 그간 일본은 한국에 무관심 그 자체였다. 한류의 힘으로 이제야 관심이 좀 생기나 했더니 한류는 험한을 동반했다. 여전히 갈 길은 험난하고 희망을 말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후지산의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화는 매우 시적인 메타포를 상기시킨다. ‘바위 위에 핀 꽃’이 그것이다. 여기서 ‘바위’는 이와나가히메를, ‘꽃’은 고노하나사쿠야히메를 상징한다. 그 두 개의 상징이 결합된 ‘바위 위에 핀 꽃’은 벼랑 끝에 선 한일관계의 미래를 연상시키는 하나의 희망적인 메타포이다. 과연 희망이란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절망을 피하지 않고 대면할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법이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작금의 한일관계에서 ‘바위 위에 핀 꽃’을 꿈꾸는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보인다.(433쪽)

이 책의 곳곳에는 이와 같은 문학적 메타포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만 이와나가히메와 고노하나사쿠야히메 신화는 천손 니니기가 바위처럼 영생을 주는 이와나가히메를 거절하고 아름다운 고노하나사쿠야히메만 아내로 선택함으로써 이후 천황 수명의 유한성을 표상하는 것일 뿐, 사실 희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저자의 지나친 낙관론이 신화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저 ‘바위 위에 핀 꽃’을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메타포가 책 속에서 적절한 상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거친 길 위의 돌부리마냥 자꾸 걸린다. 본줄기와는 거리가 있는 사소한 표현 따위를 문제 삼아 트집 잡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다른 예로, 스사노오의 후예인 오쿠니누시 신이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에게 무조건적으로 국토를 이양하는 신화에 대해 저자는 일본문화의 에토스 그 자체를 표상하는 ‘화’(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문화론에서 유독 ‘화’ 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가말로 무엇보다 시급한 비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내면과 심층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말이 쉽지, 실제로는 그렇게 간

단하지가 않다. 더욱이 우리 모두가 저자와 같은 구도자의 시선에서 일
본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
오히려 가볍고 들뜬 관광객의 시선이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현상을 직시하는 날카로움은 부족할지 몰라도 무책임한 호기심이 그들
에게는 강점이 된다. 아즈마 히로키의 ‘관광객의 철학’까지 소환하지 않
더라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박한 관광객이 요구되는 시점일지 모
른다.

관광과 순례의 차이는 근본적인 현상의 차이에 있지 않다. 영적(靈
的)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지한 관광은 열광적 순례와 매우 유
사하다. 사회인류학자 터너(Victor Turner)는 순례자가 절반쯤 관광자라면
관광자도 절반쯤은 순례자라고 했다. 대중관광 속 관광자를 ‘실험적 관
광자’라 한다면 순례자는 ‘실존적 관광자’라 할 만하다. 터너의 학문적
업적을 대표하는 코뮤니타스(communitas) 개념은 동료애 같은 평등한 관
계 맺음을 의미한다. 코뮤니타스에서의 결속은 동료 관광자들이 직함,
명함, 자동차, 집, 옷, 보석 등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을 표시하기 위
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유물을 가져오지 않는 만큼 비차별
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코뮤니타스 개념을 확
장하여 세속 의례와 여가활동에서 보이는 유사 현상은 리미노이드(lim-
inoid)라 불렀다. 관광자는 일상을 벗어나 있는 동안 색다른 활동과 경험,
즉 사회적 위계의 혼합이나 역할 전도 상태인 리미노이드를 추구한다.
바야흐로 ‘순례’를 위시한 ‘문화관광’ 시대의 개막이다.

문화관광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거리두기 방식은 몸의 거리부터 줄
이는 것이리라. 가까이 가서 일단 부딪치고 몇 번인가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찬찬히 마음을 들여다볼 게 아닌가. 만약 한일관계에 희망이 남
아 있다면 순례와 관광 사이에서 동등한 시선으로 마주하고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기대어 볼 일이다.

- Jackson, Michelle, ed., *Determined to Succeed: Performance versus Choice in Educational Attainment*, Stanford, 2013.
- Kariya, Takehiko,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to Work in Japan: Meritocracy through Institutional and Semi-Institutional Linkages," Yossi Shavit & Walter Muller, ed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Clarendon Press Oxford, 1998.
- Kariya, Takehiko,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Routledge, 2012.
- Lipset, Seymour Martin & Reinhard Bendix,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Routledge, 2017.
- Lucas, Samuel,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2001.
- Raftery, Adrian & Michael Hout,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1993.
- Sato, Yoshimichi, "Stability and Increasing Fluidity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Stratification System," *Contemporary Japan* 22, 2010.
- Sato, Yoshimichi & Shin Arita, "Inequality in Educational Returns in Japan," Fabrizio Bernardi & Gabrielle Ballarino, eds., *Education, Occupation and Social Orig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 Shavit, Yossi & Hans-Peter Blossfeld,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Westview Press, 1993.
- Tominaga, Ken'ichi, "Studies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Japan: 1955-1967," *Rice University Studies* 56(4), 1970.
- Treiman, Donald & Kazuo Yamaguchi,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Japan," Yossi Shavit & Hans-Peter Blossfeld, eds., *Persistent Inequality*, Westview Press, 1993.

서평

여행자의 시선과 구도자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례길에서:

『일본 재발견: 일본인의 성지를 걷다』(박규태, 2020) 를 읽고서 | 배관문

마루야마 마사오, 고재석 옮김, 『사상사의 방법과 대상』, 소화, 1997.

아즈마 히로키, 안천 옮김, 『관광객의 철학』, 리시울, 2020.

터너, 빅터, 장용규 옮김, 『상징의 숲』 1~2, 지식올만드는지식, 2020.

호리에 노리치카, 「파워스팟 체험의 현상학: 현세이익에서 심리이익으로」, 『일본비평』 1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